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S&P, 메트라이프 신용등급 하향 검토

- 미국 신용평가기관 S&P는 메트라이프가 AIG의 생명보험 자회사 알리코(Alico)를 인수할 경우 메트라이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.
 - S&P는 보고서를 통해 알리코의 인수가 메트라이프의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메트라이프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(CreditWatch with Negative implication)으로 발표함.
 - 메트라이프는 지난 화요일, 2009년 4/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세계 50개국에서 영업 중인 AIG의 생명보험 자회사 알리코에 대한 인수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, 인수는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.
 - S&P는 작년에도 메트라이프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-로 조정한 바 있으며, 메트라이프의 자본금과 재무유연성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재무지표 악화와 더불어 운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함.
 - 메트라이프의 주가는 악화된 4/4분기 실적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으로 인해 4.3% 하락한 34.80달러를 나타냈으며, 메트라이프의 대변인은 인수를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반박함.
- 메트라이프의 CEO 로버트 헨릭슨(Robert Henrikson)은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안정으로 회사 재무여건이 강화되면서 영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번 인수협상의 성사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함.
 - 헨릭슨은 인수합병이 주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메트라이프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.
 - 한편, 500억 달러의 상업모기지를 포함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는 신용등급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 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투자손실 전망과 함께 메트라이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음.

(Businessweek, 2/3)